

미국을 위한 미래와 2020년 7월 18일 - 번호 6

해군 소위

Jeff Pippenger

2023-09-23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그들이 발로 일어섰고, 그들을 본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을 들었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11:11, 12.

거리에서 짓밟힌 뒤, 엘리야와 모세는 보혜사를 받고 발로 일어섰다. 에스겔의 뼈들의 골짜기는 먼저 소리를 듣고 이어 흔들림을 겪었지만, 여전히 숨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일어나 뼈들이 서로 모여, 뼈가 그 뼈에 붙었다. 내가 보니, 보라,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돋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안에는 생기가 없었다. 에스겔 37:7, 8.

육체들이 재구성되었을 때, 그들은 사방의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다.

그가 내게 이르되, '바람에게 예언하라. 예언하라, 인자야. 바람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가 명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자기 발로 일어서니, 매우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 37:9, 10.

모든 선지자들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킨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구절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선지자의 메시지를 피하려는 이들에게 딜레마를 만든다. 물론 그 메시지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짓말은 요한계시록 11장은 프랑스 혁명을 가리키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일 뿐이며 세상 종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요한계시록 11장도 세상의 종말을 가리킨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종말에 큰 소리로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화시켜야 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니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나, 곧 내가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11-14.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며, 그 구름은 천사들을 상징한다. 모세와 엘리야는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있을 때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슬람의 기별과 연관되어 일요일 법령 때 하늘로 올라간다.

이사야는 이 역사와 관련된 많은 진리를 밝혀 주는데, 이는 예수가 자신의 사역을 밝히기 위해 인용한 바로 그 동일한 본문에서이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언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동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로 제시했고, 그 즉시 나사렛의 교회 사람들은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겸손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며, 포로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의 문이 열림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애통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마음 대신 찬송의 옷을 주어, 그들이 '의의 나무들', 곧 주께서 심으신 것이라 불리게 하여,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신다. 그들은 옛 폐허를 다시 세우고, 처음의 황폐를 일으키며, 여러 세대 동안 황무하던 성읍들을 보수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서서 너희 양 떼를 치고, 타국인의 자손들이 너희 밭을 가는 자와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 불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방 나라의 풍요를 누리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 자랑하라. 너희가 당한 수치 대신 갑절을 얻고, 모욕 대신 그들의 분깃으로 기뻐하리니,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소유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나 주는 정의를 사랑하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빼앗는 행위를 미워한다. 내가 진실함으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자손은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백성들 사이에서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모든 이가 그들이 주께서 복 주신 자손임을 알아볼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겹옷으로 덮어 주셨으니, 신랑이 장식을 갖추듯,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듯 하셨다. 땅이 싹을 돋아나게 하고, 동산이 그 안에 뿌린 것들을 움트게 하듯,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민족 앞에서 의와 찬송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을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아니하리니, 그 의가 광명처럼 드러나며 그 구원이 타오르는 등불처럼 나타날 때까지이다. 이방 민족들이 네 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주님의 입이 지어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너는 주님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며, 네 하나님의 손에 임금의 관이 되리라. 다시는 네가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아니하고, 네 땅도 다시는 황폐라 불리지 아니하며, 너는 헵시바라, 네 땅은 불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네 땅이 혼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혼인하듯이 네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으니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너희는 쉬지 말라.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그에게 쉼을 주지 말라.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의 아들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오직 거둔 자가 그것을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모은 자가 내 거룩함의 뜰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지나가라, 지나가라, 문들을 지나가라; 백성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 큰길을 돋우어라,

돌우어라; 돌들을 치워라; 백성을 위해 기치를 들어 올려라. 보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기를,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른다; 보라, 그의 상급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셨다.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며, 너는 '찾아 구함을 받은 자', '버려지지 않은 성읍'이라 불리리라. 이사야 61:1-62:12.

주께서는 전에 "버림받았으나" 뒤에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 된 십사만 사천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그들은 "황폐하였고" 거리에서 죽어 있었다. 이사야는 그들을 "주의 제사장들", 주의 "사역자들", "거룩한 백성", 그리고 시온의 성벽 위의 "파수꾼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시체를 보고 기뻐하던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기뻐하신다. 그때 신부는 준비되었다.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약속에서처럼 주께서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헵시바"와 "브울라"라고 정하신다. "헵시바"는 "내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고, "브울라"는 "결혼하다"는 뜻이다. 주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자들과 혼인하신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 보혜사께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이어서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이 그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함에 따라 "기치처럼 높이 들려질" 것이다. 그때 그들은 주의 손에서 "영광의 면류관"과 "왕의 보관"과 같이 될 것이다. 스가랴는 그 같은 관을 기(旗)로 동일시하며, 이 사건이 늦은 비의 때에 일어남을 밝힌다.

그 날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되어 그의 땅 위에서 기치처럼 들려 높여지리라. 그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며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가! 곡식은 청년들을 즐겁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라. 늦은 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번개 구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풀을 주시리라. 스가랴 9:16-10:1.

그들은 "그의 백성의 양떼"가 될 것이지만, 주께서는 그때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둘째 양떼도 있어서 그들도 부르실 것이다. 그들의 일은 "옛" 황폐한 곳들과 대대로의 "황무함"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들은 재림교회 안팎에서 거절되고 가려져 온 옛 길로 돌아가 그것을 다시 확립할 것이다. 그들은 밀러 운동의 기초 진리로 돌아가 그것들을 그 순수함 그대로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에 제시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 특히 안식일과 관련된 "옛" 진리에 관하여 재림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기별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세대의 역사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해 있는 때, 늦은 비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기치로 드실 때, 이전에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던 온 세상은 그 기치를 보고 파수꾼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기치를 들 때에 보라; 그가 나팔을 불 때에 들으라. 이사야 18:3.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의 시체를 두고 기뻐하던 자들이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을 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때에 앓수르 사람은 용사의 칼이 아니라 칼에 쓰러질 것이요, 또 비천한 자의 칼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라. 그러나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젊은 자들은 패하여 흩어지리라. 그는 두려워 그의 견고한 요새로 달아나며, 그의 고관들은 깃발을 두려워하리라. 이는 그의 불이 시온에 있고 그의 화덕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31:8, 9.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로 모인다. 앓수르 사람은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북방 왕을 대표하며, 그는 아무도 돕는 자 없이 그의 끝을 맞는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인 십사만 사천이 나팔을 불 때 온 세상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두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들은 위로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소식은 다니엘 11장 44절에서 북방 왕을 "번민하게" 하는 "동방과 북방에서 온 소식"이며, 그것이 일요일 법 위기에서 박해가 시작됨을 알린다. 그때 이방인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메시지에 응답하여 와서 주의 제사장들, 곧 "이새의 뿌리"로도 표현되는 이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로써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할 성경적 방법론이 드러나게 된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서서 백성을 위한 깃발이 될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찾아올 것이요,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곧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앓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리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0-12.

주께서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의 공격을 셋째 화의 도래로 지목하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백성을 모으셨다. 주께서는 그들이 거리에서 죽은 뒤 다시, 두 번째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신다. 그렇게 하실 때 모인 자들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유다의 흩어진 자들"로 불린다. 그들은 2020년 7월 18일 거리로 내쫓겼으나,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모아들이는 기치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모이게 된다.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자들의 모임은 미국의 일요일법령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음성 중 둘째이다.

첫 번째 모임은 이슬람이 미국을 타격한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다. 두 번째 모임을 위해 세워질 기치는 이새의 뿌리로 표상되는데, 이는 어떤 일의 끝을 어떤 일의 시작과 함께 보여 주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첫 번째 모임은 이슬람의 미국 타격으로 표시되었고, 이는 두 번째 모임 또한 미국에 대한 이슬람의 타격임을 보여 주고 식별해 준다. 이새의 뿌리가 이방을 위한 기치로 서게 될 때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울 것인데, 그 기치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성경의 옛 길인 일곱째 날 안식일로 다시 인도할 것이며, 이로써 일요일 법령 위기 때 이방을 위한 기치가 들려짐이 표시된다.

'깃발'은 먼저 정결의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은 말라기 3장과 그리스도의 두 차례의 성전 정결, 그리고 물론 밀러주의 운동의 마지막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묘사되어 있다.

처음의 정결 과정은 마지막에도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반복되며, 책에 언급된 단 하나의 표와 관련하여 이사야가 그것을 나타낸다. 재림주의의 반역은 하박국 2장에 언급된 두 개의 표를 거부하고 대체하기 위해 1863년에 만들어진 가짜 표이다.

이제 가서 그것을 그들 앞에서 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일 영원무궁토록 증거가 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이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여호와와 율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녀들임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는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하며, '길에서 물러가라, 도로에서 비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앞에서 그치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씀을 멸시하고 압제와 사곡함을 신뢰하며 그것에 의지하므로, 이 죄악이 너희에게 무너지려는 틈 같아서, 높은 성벽이 불룩 튀어나왔다가 그 깨짐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르는 것과 같으리라. 그가 그것을 토기장이의 그릇이 산산이 부서짐 같이 깨뜨리되 아끼지 아니하여, 그 파열 가운데 아궁이에서 불을 담을 조각 하나도, 웅덩이에서 물을 뜰 조각 하나도 찾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함과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들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빠른 것들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도 빠르리라. 한 사람의 꾸짖음에 천 명이 도망하고, 다섯 사람의 꾸짖음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침내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 같이, 언덕 위의 기치 같이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높임을 받으시리니,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백성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거하리니, 네가 다시는 울지 아니할 것이라. 네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크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이사야 30:8-19.

1863년에 재림운동은 하박국의 두 거룩한 도표에 나타난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기별을 거절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예수님은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신다. 이 구절에서 재림운동의 시작 때의 반역자들은 또한 재림운동의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을 대표한다. 두 경우 모두 그 반역은 각 시대의 예언적 기별과 방법론을 거절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들이 선견자들에게는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거짓을 예언하라"라고 말할 때와 같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선포하며 길에서 떠나기로 작정한다. "길에서 비켜라, 길에서 물러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의인의 길은 예레미야 6장 16절과 17절의 "옛 길들"이다. 반역자들은 기초적인 진리들을 따라 행하지 않기로, 또한 높임을 받은 파수꾼들, 곧 밀러라이트 운동과 퓨처 포 아메리카 운동을 대표하는 이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작정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서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라들이 들으라,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위에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의 생각이 맺은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율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버렸음이라. 예레미야 6:16-19.

반역자들이 옛 길을 걷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들 앞에서 그치게 하려는" 욕망으로도 나타나며,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을 통해 재림운동의 끝을 보여 준다는 전제에 기초한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길의 시작에서 그들 뒤에 밝은 빛을 설치해 두었는데, 천사가 내게 그것이 '한밤중의 외침'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 빛은 길 내내 비추어 그들의 발걸음을 밝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들 바로 앞에서 그들을 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했다. 그러나 곧 몇몇은 지쳐서, 성까지는 너무 멀다고 말하며, 이미 전에 그곳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화로운 오른팔을 들어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 팔에서 나온 빛이 재림의 무리 위로 물결치듯 비치자,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또 어떤 이들은 경솔하게도 자신들 뒤의 빛을 부인하며,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의 빛이 꺼져 발아래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목표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길에서 벗어나 아래의 어둡고 악한 세상으로 떨어졌다." 엘렌 G. 화잇의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교훈, 57.

한밤중의 외침으로 상징되는 정결의 과정은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사야 30장은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 없음을 물이나 불을 취해 올 수 없는 무능으로 나타낸다. 곧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다. "그 부서짐이 한순간에 갑자기 임할 것이요,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부수듯 그것을 산산이 깨뜨려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 부서진 것 가운데서 아궁이에서 불을 옮겨 올 조각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올 조각 하나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의 심판은 한밤중의 외침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갑자기" 임하며, 그때 그들은 기름을 얻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음을 알게 된다. 이사야의 증언에서 말하는 불과 물은 열 처녀 비유의 기름을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기름과 물과 불은 품성을 상징하고, 메시지를 상징하며, 또한 보혜사의 임재를 상징한다. 열 처녀의 심판이 "한순간에 갑자기" 임할 때에는 이 상징들 가운데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때는 너무 늦다.

유일한 안전은 '돌아오는 것'에 있다. 이는 예레미야가 첫 번째 실망에 좌절한 이들을 대표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면 그분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거부했고, 길을 비추던 빛은 꺼졌다. 처음의 빛은 한밤중 외침이었고, 앞으로의 길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른팔로 비추어졌다. 그 길을 가는 이들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뒤에서 비추는 빛도 같은 빛이어야 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길의 시작으로 길의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한밤중 외침은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의 진리이다.

"나는 종종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던 열 처녀의 비유를 상기하게 된다. 이 비유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이미 성취되었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리로 남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8월 19일.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 앞에서 더 이상 계시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밤중의 외침 기별을 거부하는 것이다. 재림운동 초기의 한밤중의 외침 기별은 실패한 예측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옛 길'을 거부하고 가짜 'table'을 만들어 의로운 자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킨 반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밀러주의 운동에서 '한밤중의 외침'이 성취될 때로 대표된다. 그때 '천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하였고, 그 운동은 갑자기 5만 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들이 도망한 것은, 함께 나눠 줄 기름이 없으니 각자 가서 자기 기름을 사 오라고 말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에게서 온 그 '책망' 때문이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분리되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산꼭대기의 봉화처럼, 언덕 위의 기(旗)처럼' 남게 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의 미련한 처녀들의 반역은 1863년의 반역을 보여 주었으니, 1844년 10월 22일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의 끝을 가리키는 19년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말할 것이 있지만, 1844년의 반역은 1863년의 반역을 예표했으며, 가짜 'table'이 만들어진 시점을 가리킨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겪는 두려움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 서게 될 때 드러나는 그 두려움이다. 그때가 되면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에서 돌아서기에는 너무 늦고,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일요일 법령 때 있게 될 하늘로의 승천이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사람 칠천 명이 죽었으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11:13, 14.

요한계시록 11장은 프랑스 혁명 동안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다고 밝히며, 그 역사 속에서 소돔과 애굽으로 상징되는 두 예언적 뿔을 지닌 나라였던 프랑스는 전복되었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두 뿔은 미국의 두 뿔을 예표한다.

프랑스는 예언적으로 다니엘서 7장에서 이교 로마를 대표하는 열 왕국 중 하나였으며, 그러므로 그 왕국(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다. 사실, 다니엘서 7장의 열 뿔은 538년에 결국 교황권을 세상의 권좌에 올려놓았는데, 그 가운데 프랑스는 교황권을 확립한 주된 왕국이었다. 다니엘서 7장의 열 권세 중 하나로서 프랑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짐승의 역할을 예표한다. 미국은 마지막에 프랑스가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은 일을 교황권을 위해 수행한다. 미국은 유엔을 대표하는 열 왕 가운데 주도적 세력이며, 일요일 법령의 지진 때 무너진다. 이 구절들은 다음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이 글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메시지라는 점이다. 이는 그들을 일으키는 보혜사가 기름을 상징하기 때문인데,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들도 상징한다. 모세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도 표현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서게 되리라.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골라 내면, 너는 내 입과 같게 되리라. 그들로 하여금 네게로 돌아오게 하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져낼 것임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 주며, 포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9-21.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같은 호소를 했다. "대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돌이켜 안식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는 또 그 "돌아옴"이 그 비유에서 지체하는 때와 관련되어 있다고 덧붙였으니,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므로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리니, 대저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입'이 되는 특권은,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는 특권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게 될 것은 교황권의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이다. 그 영광스러운 운동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네가 내 앞에서 네 가증한 것들을 치워 버리면, 네가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진리와 공의와 의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맹세할 것이며, 그리하면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벗겨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의 악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터져 나와 타올라, 아무도 끄지 못하리라. 유다에서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공포하여 이르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외쳐라, '모이라' 하고 말하라. '모여서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해 기치를 세우라. 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괴를 가져오리라. 사자가 자기 수풀에서 올라왔고, 이방인들을 멸하는 자가 길을 떠났다. 그는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처소에서 나왔으니, 네 성읍들은 주민 없이 폐허가 되리라. 예레미야 4:1-7.

그러나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모였다. 그는 온 므낫세에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그를 따라 모였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올라와 그들과 합세하였다. 사사기 6:34, 35.